

종교 초월한 자비탁발 나선다 옥천불교사암련 15일 옥천읍내 일원서

충북 옥천군 내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탁발정진을 실시한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12월 15일 오후 1시 청주 종교인 사랑방 회원(청주 수동성당 곽동철 신부, 학림교회 이근태 목사, 청주노동교회 조순형 전도사, 청주 관음사 현진 스님, 보은 관기교회 배영도 목사, 보은지역 자활센터장 성낙현 목사, 청주 살터교회 김태종 목사, 원불교 청주 상당교당 박신유 교무, 청주 용암동산교회 최현성 목사) 등과 함께 옥천읍내 일원에서 탁발정진을 봉행한다.

탁발정진 기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옥천군청에서 군정발전 기원문을 낭독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군민 동참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옥천경찰서와 옥천역, 옥천재래시장, 농협옥천군지부 등을 방문해 탁발을 한다. 이번 탁발을 통해 모은 성금과 각 신도회 자비보시 성금은 군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혜철 스님은 “나라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정성을 모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해에는 탁발을 통해 어려운 가정 100가구에 연탄과 쌀 부식 등을 제공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안일사, 남구청 ‘사랑의 김장나누기’ 동참

대구 안일사주지 선광은 12월 4일 대구 남구청이 주최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광 스님이 기증한 배추 2000여 포기,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등 지역단체 봉사자들이 김치를 담궈 결혼 이주여성과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선광 스님은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5-6차례 봉사하고 있는 안일사 신도들의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다음 해에는 더욱 알차고 폭넓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마음 편하면 세계가 편안”

은혜사, 일타 대중사 10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12월 8일 영천 은혜사(주지 돈관)에서 ‘동광당 일타 대중사 10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행사에서는 식순 의식에 따라 일타 대중사의 행장소개(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와 평소 육성녹을 법문 ‘한마음이 편안하면 세계가 편안해진다’는 법어 청취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홍 스님, 종회의원 스님, 총무원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 주지스님, 문중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12월 8일 영천 은혜사에서 봉행된 일타 대중사 10주기 추모다례재 모습.

50여 년간 일타 스님을 모신 문도대표 혜인 스님은 “누구에게나 섭섭함 없이 언제나 친절함 미소로 정을 듬뿍 주셨던 은사스님을 기억할 때마다 스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일타 스님은 1929년 9월 충남 공주에서 출생해 1942년 양산 통도사에서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

가했다. 1954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하루 3000배씩 7일 기도한 스님은 오른쪽 네 손가락을 연비하며 “오로지 중노릇만 잘하겠다”고 발심했다.

스님은 30대 젊은 나이에 대법사로 추앙 받아 전국 여러 사찰에서 걸림 없는 교화의 길을 열어 보였었다. 일타 스님은 1976년부터는 혜인사 율주로서 <사미음의> <불교와 계율> 등 계율 관련 서

적을 출간해 일제 강점기부터 무너졌던 한국불교 계율 정립에 힘을 쏟았다.

이후 혜인사 지족암에 선방을 열고, 은혜사 조실로 주석한 스님은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와 불산 금강굴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미국 LA 고려사 포교 등 한국 불교의 세계 전파에도 앞장서었다.

조동섭 기자 · 손범천 대구지사장

폐지 주위 후원금으로 보시해 이효정 할머니 선행에 웃음꽃 만발

몸을 움츠리게 하는 쌀쌀한 날씨, 어려운 살림에도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노보살이 있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12월 7일 이효정 할머니(77)의 선행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폐지를 주위 모은 10여만 원을 복지관에 후원금으로 선포 전달했다.

장곡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 후원금은 가진 자들의 몇 천만 원 보다 값진 것”이라며 “좋은 일에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할머니는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어르신이다. 할머니는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장 장곡 스님(왼쪽)에게 이효정 할머니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시니어클럽, 지역복지관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이 할머니는 자신도 녀겨지지 않는 행 편이지만

타인에게 도움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폐지를 모아 본인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마음을 냈다.

이효정 할머니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몸이 더 안좋아졌지만 병원에 갈 치료비가 없어서 절대로 모아둔 돈은 쓰지 않고 모았다. 다행히 그때마다 무료진료 연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보광당 도훈 스님 열반

청도 금용사, 29일 대비영결식 봉행



11월 29일 청도 금용사에서 봉행된 도훈 스님 영결식 모습.

청도 금용사 보광당 도훈 스님이 11월 27일 열반해, 금용사 경내에서 29일 대비 영결식이 봉행됐다.

판상좌 효준 스님(금용사 주지)은 영결식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교와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결식장에는 종도스님, 청도사암연합회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청도 금용사에서는 12월 3일 초재를 시

작으로 스님의 49재가 봉행된다.

도훈 스님은 세수 77세로 1957년 대성암 영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산 스님으로부터 보광당의 법호를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도훈 스님은 견성암 양진암 등 제방 선방에서 20여년 동안 참선 수행정진을 해왔다. 이후 스님은 청도 금용사에 주석하면서 수행 정진에 힘써온 스님이다. (054)372-5721 손범천 대구지사장

“원력 가득한 도량으로 만들자”

보문시현사 33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

대한불교법화종 대구 보문시현사주지 일우는 12월 5일 경내에서 ‘33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법화종 지역교구 원장스님, 종도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화종 중앙총회 의장 도정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화신으로 도심 사찰에서 모시기 힘든 부처님을 장엄하게 봉안하게 돼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우 스님은 “바른 믿음과 신심으로 33관음을 봉안한 우리 절을 원력과 흥심이 가득한 법화의 꽃이 활짝 핀 도량으로 심안의 점을 찍어 나아



법화종 대구 보문시현사에서 봉행된 33응신목관세음보살 점안법회 모습.

가는데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 동안 각자의 서원을 담아 부처님 모시는 불사에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무상보리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해 가겠다”며 성원해준 대중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자비화합 소리...’

경북불교대 개교 10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개교 10주년을 기념한 합창단 연주회가 12월 4일 ‘자비화합 소리 위를 걸다’를 주제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연주회에서는 불광사 합창단 40명이 3부로 나눠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의 주인’ ‘인생의 무상함’ 등 9곡의 찬불가로 청량한 음성공양을 펼쳤다.

또 특별출연으로 경북대 예술대 교수의 단소 독주, 한국전통연희단의 판굿 등도 무대에 올려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혜사 주지)은 “불광사 합창단이 더욱 더 굳건한 신심으로 자비화합하고 열반의 불꽃처럼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법보시 나눔마당

하루 하루 지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 참선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공부의 마당이
한마음선원에서 마련됩니다.

제 12회 마음공부포럼

일시 / 2009년 12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한마음선원 본원 주회 / 한마음선원
주최 / 한마음과학원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선착순 입장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471-69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